



예 재 길  
(바이엘 동물의약연구소)

## 양돈장의 방역관리 기본수칙

돼지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함은 양돈산업이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질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양돈장에서의 위생적인 사양관리, 우수한 치료약제와 예방백신의 개발 및 생산, 약품의 효과적인 사용, 철저한 방역관리, 질병의 조기 진단법 개발, 돼지 질병의 연구 및 교육,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책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양돈기술인들은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돈장에서 질병의 피해를 줄이는 기본 방침인 양돈장의 방역관리 기본 수칙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독을 철저히 한다.**

소독은 집단사육 양돈장에서는 필연적 작업으로 농장입구, 돈사 주위, 농장내 통로, 돈사 출입구, 돈분장, 돼지전출후 빈 돈방, 돼지 체표 등 소독해야 될 장소도 수없이 많다. 돼지 체표 소독이나 돼지가 있는 돈사내의 소독은 돼지의 호흡기 점막에 자극이 없는 소독제로서 평당 0.3-0.6ℓ 수준으로 하절기 주 3회 동절기 주 2회 이상 분무 살포해야 하며, 분만사 및 육성돈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돈분 제거를 완전히 한 후 건조와 소독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포유자돈의 설사가 문제되는 분만돈사 일수록 철저한 소독이 요망된다. 또 돈사 출입구에 소독조를 반드시 설치하여 돈사 관리자와 외부인 출입시 신발 소독을 하고 출입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될 것이다.

**둘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한다.**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예방접종약의 철저한 관리 및 정확한 접종을 해야된다. (예방접종 프로그램 작성요령은 월간 양돈 10월호 질병 칼럼 참조)

**세째, 돈군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환돈 발생시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

돈군의 건강상태 확인 방법은 사료섭취량의 변화, 돈군의 활력이나 운동성, 보행상태, 체온(돼지의 정상 체온은 38℃-39.5℃), 호흡상태, 오줌의 색깔을 관찰하고 꼬리가 윗쪽으로 말아올리고 있는지, 피부는 광택이 있으며 돈분은 설사나 변비가 없는지 확인한다. 환돈의 상태에 따라 호흡기 증상, 설사, 관절염, 위상 등 세균성 질병이면 앰피실린, 페니실린, 클로

람페니콜, 테트라사이클린, 링크스펙틴, 겐타마이신, 세팔로틴 등 항생물질과 해열진통제, 지사제, 생균제 등 보조요법을 실시한다. 탈홍, 교상돈 및 건강상태가 불량한 돼지 등 상태에 따라 환돈방을 만들어 격리 사육을 하면 회복이 빠르다. 환돈에 급여하는 사료는 항생제와 영양제를 더 첨가하고 요즈음의 기온에는 보온 등을 설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네째,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되도록 농장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위생적인 사양관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다음 몇가지 사항 부터 추진해야 된다. 즉 ① 철저한 돈분 제거 작업으로 돈방내 암모니아가스,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의 발생을 방지한다. ② 주기적인 환기로 돈사 내 먼지와 유해가스가 저류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분만사, 육성사, 비육사 등 돈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임신말기 모돈을 분만사로 전입시 철저한 피부세척과 소독으로 분만사의 위생상태를 지속시킨다. ⑤ 분만직후 신생자돈에 양수를 철저히 닦아주며 초유급여전 유방을 세척 소독한다. 이때 사용하는 수건은 자주 소독한다. ⑥ 신선한 사료급여 및 사료조내에서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⑦ 분만돈방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키고 보온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다섯째, 정기적인 구충작업을 실시한다. 돼지의 기생충은 내부기생충으로 회충, 장결절충, 적색 위충, 편충, 신장충, 돈폐충 등이 있고 외부기생충으로는 개선충, 돼지 이, 진드기 등이 있다.

내부기생충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육성사료 이동 2-3일후의 자돈에게 구충제를 투여한다. 또 분만사로 이동시 살균제와 개선충 구제제를 혼합하여 피부소독을 실시한다. 장기간 방목한 돼지에게는 돈폐충 구제도 잊지 말아야 한

다.

여섯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은 소독을 실시한다.

돼지의 질병 발생은 농장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침입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돼지 전염성위장염(T.G.E), 돼지 콜레라, 흉막폐염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감염된 돼지나 차량, 기구, 사람 등에 의하여 전염된다. 그러므로 농장 정문에서 부터 차량소독, 신발소독 등을 실시하고 외부인을 위한 장화, 가운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외부에서 전입되는 돼지는 격리기간 동안 철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류 시킨다.

이러한 양돈장의 방역관리 기본수칙은 지키고 양돈장별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면 농장의 질병발생도 줄일 수 있고 질병의 피해도 감소되어 생산성이 우수한 양돈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끝으로 그동안 필자의 연속적인 질병 칼럼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알림

지난 7월부터 집필해주신 사양칼럼의 윤덕영씨(덕영종돈장 대표)와 질병칼럼의 예재길씨(바이엘 동물의약연구소)는 이번호까지 집필해주시고 다음호부터는 새로운 칼럼인 박영일(서울대 교수) 육종칼럼란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질병칼럼은 김용희(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박사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칼럼란을 많이 애독해 주시길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도 계속 원고를 내주시는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자 주)